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한농연, 미래농정 창립기념 토론회 참가

'국민의 정부' 농정 평가 및 '참여정부' 의 농정과제에 대한 입장 밝혀 → **권 주장(박씨)**

지난 5월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미래농정 창립기념 정책토론회가 「농림해양수산정책,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와 새정부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농림축산분야, 수산분야, 해운항만분야에 대해 각각 발제를 진행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농림축산분야는 경북대 김충실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자로는 탁명구 한농연 정책실장, 이종화 전 농정정책실장, 김건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김인식 WTO 국민연대 사무총장이 참여하였다.

토론 발제문에서 김충실 교수는 국민의 정부의 농정에 대하여 “정권출범 초기에 보여준 농정 열정은 과학적 농정체계의 결여와 농정예산 낭비 및 농업쇠퇴의 악순환 속에서 농정의 정치적·사회적 비용만을 증대시키고 농민의 상대적 박탈감만을 확인시켰다” 고 평가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농정과제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는 역대 농정실패 요인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에서 출발해야 하며, 몇 가지 농정수요 항목을 변경하고, 신조어 몇 개를 제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앞으로 개방화 시대 농정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과학농정모형’ 을 구축하고, 농정연구개발의 고질적인 독점체계를 타파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한농연 탁명구 정책실장은 “농업계에 연구소는 많지만, 농민들이 필요한 현장성 있는 대안을 제시는 연구소는 없다” 고 지적하고 “오늘 출범하는 미래농정연구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참여정부의 농정의 기초에서 복지정책이 유일한 대안인양 말하고 있는데,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정책과 복지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말하고, 농가부채의 추가 대책 및 근본적 대책 수립, 농업예산 확충, 협동조합 개혁,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한다고 말했다.

한농연, 대통령 직속 농어촌대책 태스크포스팀(T/F) 참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입장 분명히 밝혀

지난 4월 29일 한농연중앙연합회 신명운 사업부회장은 농어촌대책 T/F에 참석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FTA이행특별법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농연 신명운 사업부회장과 전농 박홍식 사무총장 그리고, WTO국민연대 윤석원 집행위원장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민의 피해를 전제로 한 FTA이행특별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농어촌대책 태스크 포스팀(T/F)는 노무현 대통령이 농·어업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농정공약의 일환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 조정 및 직보(직접 보고)기구이다. 현재 농어촌T/F 팀장은 정권 인수위원회 농업분야를 맡았던 정명채 박사가 맡고 있으며, 지난 29일 회의에서는 한농연, 전농을 비롯한 농

민단체와 재경부,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1급 공무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농촌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농특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연합회 소식

경남도연합회 조직발전을 위한 권역별 순회 간담회 실시

한농연경남도연합회(회장 김종출)에서는 2003년도 핵심사업으로 점점 약해져 가는 한농연조직력을 복원시키기 위해 경남도 20개 시군연합회를 4대 권역(동부권, 중부권, 한려해상권, 서부권)으로 나누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먼저 지난 4월 7일 진해시청 소회의실에서 동부권(양산, 김해, 창원, 마산, 진해) 간담회를 가졌다. 동부권 간담회는 20여명의 시·군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주된 내용은 도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진주산업대위탁교육생 모집 방법에 대한 개선점과 결집력이 약화되고 있는 한농연 조직의 조직력 복구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되었다.

중부권(밀양, 창녕, 의령, 함안) 간담회는 4월 25일 함안군 농업인회관에서 30여명이 모여 진행되었다. 중부권 간담회에서는 농가부채에 대한 해결방안과 농어민신문 주주 배당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농어민신문의 내용의 다양화, 농산물 광고판의 확대, 도연합회 활동인원의 확충, 농산물 가격 최고-최저 표시제, 재정자립을 위한 사업체 건립, 대정부 투쟁 강화 등 다양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려해상권(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하동) 간담회는 4월 29일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30여명이 모여 내실있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한려해상권 간담회에서는 회원정예회의의 문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부분, 한농연의 농민단체로서의 역할, 농협노조의 문제등 기간 간담회 보다 더욱 많은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특히 한농연의 이름을 걸고 출마하는 조합장과 지자체 의원들에 대한 검증의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농연은 농민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 등 한농연 조직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되어 의미 있는 간담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부권(거창, 함양, 함천, 산청, 진주) 간담회가 5월 1일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진행되었다. 서부권도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진지한 간담회가 되었다. 이후 지속적 간담회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시군별 간담회로 확대해 줄 것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한농연 경남도연합회에서는 이번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조직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들을 회원들로부터 직접 듣는 계기가 되었다. 회원들도 처음 시도된 간담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회가 거듭될수록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 주최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밖의 농업계 소식

전국농민연대 농협중앙회 앞에서 「협동조합 개혁 선포식」 개최 9개 참가 농민단체, 강력한 협동조합 개혁 의지 밝혀

전국농민연대는 지난 4월 10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협동조합 개혁 선포식을 개최하고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2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발표한 20대 과제를 전달하고, 개혁과제의 성실하고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전국농민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어려운 농민 조합원을 보호하지는 못할지언정, 농가부채 채권 추심과 재산권 강제집행 등을 들먹이며 이 땅의 400만 농민들을 비관 자살의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의 기막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협동조합을 농민 조합원의 품으로 되가져오기 위해, 모든 힘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농연은 4월~5월초 도·시·군별 「협동조합 개혁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협동조합 개혁운동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한농연 각도 연합회 협동조합 개혁 선포식 일정

- 경기도 4월 24일 11:00 농협경기도지역본부
- 강원도 4월 29일 11:00 농협강원도지역본부
- 충북도 5월 2일 14:00 농협충북도지역본부
- 충남도 4월 29일 14:00 농협충남도지역본부
- 전북도 5월 2일 11:00 농협전북도지역본부
- 경북도 4월 16일 14:00 농협경북도지역본부
- 제주도 5월 7일 11:00 농협제주도지역본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쟁점 협의 재개

세계무역기구(WTO)는 3월31일까지의 세부원칙 마련 실패 이후 교착상태에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주요 쟁점별 비공식협의를 재개했다.

세계무역기구는 23일~25일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스튜어트 하빈슨 농업위원회 의장 주재로 개도국 우대를 비롯해 관세할당, 생산제한 직접지불(블루박스)을 주제로 비공식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비공식협의회에서 회원국들은 개도국 우대와 관련, 핵심품목과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허용보조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관세할당 물량의 기준인 국내 소비량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농업협상을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31일 농업 세부원칙수립에 대한 합의 실패 이후 처음이다. **민농연**

허울뿐인 「FTA 이행 특별법」과 「한-칠레 FTA 후속대책」을 즉각 철회하라!!!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만이 민족의 생명줄인 농업·농민을 살릴 수 있습니다!

● 「FTA 이행 특별법」과 「한-칠레 FTA 후속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폐원 및 구조조정, 농업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정책은, 국내 과수산업의 일방적인 축소와 농업생산력의 파괴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 기업 출연금과 정부예산 지원으로 7년간 8,400억원의 「FTA 이행 특별기금」 조성 계획마저, 경제침체 장기화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 한-칠레 FTA 국회비준 통과만을 의식하여, 공개적인 토론 및 철저한 검증절차가 없이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같은 정부의 FTA 추진 정책으로 인해, 7천만 민족의생명산업인 농업과 식량주권은 파탄날 수밖에 없습니다.

● 한농연 12만 회원은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을 적극 저지할 것입니다.

- 한농연이 앞장서서, 전국농민연대 소속 농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 전체 국회의원 272명 가운데 138명이 한-칠레 FTA 비준 반대 서명에 동참하여, 비준 반대에 필요한 과반수(137명)를 돌파하였습니다.
- 김영진 현 농림부 장관을 포함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 전원이,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 거부 서명에 제일 먼저 동참하였습니다.
- 멕시코 정부도 자국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초식량작물 재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농업부문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 한-칠레 FTA 타결 당시 칠레 정부는 자국 금융산업의 개방 논의를 4년간 유예시켰으나, 우리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해 불평등협상을 자초했습니다.
- 지금이라도 정부는 「FTA 이행 특별법」과 「한-칠레 FTA 국회비준 동의안」 동시 처리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경제적 실익과 명분이 전혀 없는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은, 4천 7백만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한농연 12만 회원과 400만 농민은, 4천7백만 국민과 함께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의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03. 5.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 칠레 FTA 비준거부 국회의원 서명현황

(2003년 5월 1일 현재 총 137명 - 김영진 장관 포함시 138명 - / 국회의원 총원 272명)

| | |
|-------------|--|
| 경기 19명 | 배기선(부천 원미읍) / 최선영(부천 오정) / 정상선(평택읍) / 강성구(오산·화성) / 김황식(하남) / 이해구(안성) / 정병국(가평·양평) / 박종우(김포) / 이규택(여주) / 남궁석(용인갑) / 이희규(이천) / 임태희(성남분당을) / 고희길(성남분당갑) / 김덕배(고양일산을) / 이재창(파주) / 조정무(남양주) / 원유철(평택갑) / 전재희(광명) / 김문수(부천 소사) |
| 강원 8명 | 최연희(동해·삼척) / 김용학(영월·평창) / 이용삼(화천·철원·양구) / 송훈석(속초·고성·양양·인제) / 김택기(태백·정선) / 최돈용(강릉) / 이창복(원주) / 유재규(홍천·횡성) |
| 충북 6명 | 신경식(청원) / 심규철(보은·옥천·영동) / 정우택(진천·음성·괴산) / 송광호(제천·단양) / 이원성(충주) / 윤경식(청주 흥덕) |
| 충남 9명 | 전용학(천안갑) / 함석재(천안을) / 이완구(천양·홍성) / 문석호(서산·태안) / 정진석(공주·연기) / 이인재(금산·논산) / 김학원(부여) / 송영진(당진) / 오장섭(예산) |
| 전북 7명 | 장성원(김제) / 김원기(정읍) / 이강래(남원·순창) / 김태식(완주·임실) / 이철(익산) / 정균환(고창·부안) / 장영달(전주 완산) |
| 전남 11명 | 정철기(광양·구례) / 천용택(강진·완도) / 이정일(해남·진도) / 이낙연(함평·영광) / 배기운(나주) / 김홍조(여수) / 김효석(곡성·광양·장성) / 김경재(순천) / 김옥두(장흥·영암) / 박주선(보성·화순) / 박상천(고흥) |
| 경북 16명 | 권오을(안동) / 김광원(봉화·울진) / 김성조(구미) / 이상배(상주) / 신영국(문경·예천) / 박재욱(경산·청도) / 주진우(고령·성주) / 이인기(칠곡) / 정창화(의성·군위) / 김찬우(청송·영양·영덕) / 박헌기(영천) / 박시균(영주) / 임인배(김천) / 김일윤(경주) / 이병석(포항북구) / 이상득(포항남구·울릉) |
| 경남 16명 | 김학송(진해) / 김동욱(통영·고성) / 이방호(사천) / 김용갑(밀양·창녕) / 윤한도(의령·함안) / 박희태(남해·하동) / 이강두(거창·함양) / 김용균(산청·합천) / 하순봉(진주) / 이주영(창원 울) / 김종하(창원 갑) / 김기춘(거제) / 김영일(김해) / 나오연(양산) / 강삼재(마산 회원) / 김정부(마산 합포) |
| 제주 3명 | 현경대(제주) / 양정규(북제주) / 고진부(서귀포·남제주) |
| 특광 33명 | 이우재(서울 금천) / 이상희(대전 동구) / 송석찬(대전 유성구) / 권기술(울산 울주) / 허태열(부산 북구·강서구을) / 안경률(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 전갑길(광주 광산) / 정동채(광주 서구) / 강운태(광주 남구) / 이재오(서울 은평) / 민봉기(인천 남구갑) / 박상규(인천 부평갑) / 서상섭(인천 동·중구) / 김희선(서울 동대문갑) / 김경천(광주 동구) / 강재섭(대구 서구) / 원희룡(서울 양천갑) / 이해봉(대구 달서을) / 박송국(대구 북구갑) / 강신성일(대구 동구) / 안택수(대구 북구을) / 백승홍(대구 중구) / 김상현(광주 북갑) / 김태홍(광주 북을) / 이윤성(인천 남동갑) / 권철현(부산 사상) / 정형근(부산 북구·강서갑) / 조한천(인천 서구·강화갑) / 설송웅(서울 용산) / 박주천(서울 마포을) / 최병렬(서울 강남갑) / 서청원(서울 동작갑) / 이성현(서울 서대문갑) |
| 비례대표 10명 | 김영진 / 윤철상 / 임진출 / 최재승 / 최영희 / 하운나 / 김낙기 / 손희정 / 이미경 / 김정숙 |